

2025 국민이 함께하는 저작권 글 공모전(산문)

제목

공유와 존중 사이, 우리가 지켜야 할 선

나는 컴퓨터공학을 전공하는 대학생이다. 하루의 절반은 모니터 앞에서 보내고, 나머지 절반은 머릿속에서 코드를 돌린다. 컴파일 에러와 논리 버그를 풀어내는 일이 이제는 지겨운 숙제가 아니라, 나만의 창작이자 도전으로 느껴진다. 개발이라는 세계는 참 매력적이다. 단순한 텍스트 파일 하나가 실제 있는 서비스가 되고, 나만의 문제 해결 방식이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 코드 한 줄이 세상을 바꾸는 경험. 그래서 나는 이 분야에 매료되었고, 동시에 이 세계의 윤리와 책임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게 되었다.

내가 처음으로 저작권이라는 개념에 '감정'을 느낀 건 대학교 1학년, 한 교양 수업의 팀 프로젝트에서였다. 나는 프론트엔드 코딩을 맡았고, 오랜 시간 밤을 새며 페이지 하나하나를 만들었다. 결과물은 꽤 만족스러웠다. 하지만 발표 당일, 팀원 중 한 명이 그 화면을 자신이 직접 구현했다고 발표했다. 나는 멍하니 그 말을 듣고 있었다. 나의 노력이 마치 투명한 공기처럼 스쳐 지나갔다. 당시 나는 항의하지도 못했다. 증명할 수 없다는 이유 때문이었다. 그날 이후, 나는 내 작업에 이름을 붙이고 기록을 남기기 시작했다. 그것은 단순한 자기 방어였지만, 동시에 '창작자의 권리'에 대한 나의 첫 실천이었다.

코딩 세계는 '공유'라는 가치를 핵심으로 삼는다. 오픈소스 문화는 자유로운 지식의 순환을 가능하게 하고, GitHub에는 전 세계 개발자들의 노하우가 쌓여 있다. 나는 그 공간에서 자랐다. 누군가가 만든 코드에서 아이디어를 얻고, 그 위에 나만의 기능을 얹으며 성장했다. 하지만 이 모든 '공유'는 '존중'이라는 전제가 있을 때만 선의로 작동한다. 누군가의 코드를 출처 없이 복사하고, 설명 없이 붙여넣는 순간, 그것은 '도움'이 아니라 '침해'가 된다.

학기 중 한 교수님은 말했다. "코드는 문장이다. 그리고 문장에는 저자가 있다." 그 말을 들은 이후, 나는 내가 쓰는 코드 한 줄 한 줄에도 작가로서의 태도를 가지게 됐다.

그런데 이 문장을 다시 복잡하게 만드는 것이 있다. 바로 인공지능이다.

ChatGPT, Copilot, Claude 같은 생성형 AI 도구는 이제 개발자의 동반자가 되었다. 처음에는 단순한 코드 자동완성 수준이었지만, 이젠 몇 줄의 설명만 있으면 기능 전체를 만들어 준다. 때론 나보다 더 나은 알고리즘을, 나보다 더 깔끔한 구조로 제공한다. 편리하고 놀랍다. 하지만 동시에 혼란스럽다. 내가 직접 구현하지 않은 코드, 내가 직접 떠올리지 않은 아이디어를 결과물에 사용할 때, 그 창작의 주체는 누구인가? 나는 과연 저작권을 주장할 수 있는가? 누군가 나에게 묻는다면, "이 코드를 누가 짰나요?" 나는 잠시 멈춰 고민하게 된다.

디지털 시대의 저작권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 단순히 도용 여부를 따지는 시대는 지났다. 이제는 창작과 비창작의 경계, 사람과 인공지능의 협업 방식, 공유와 권리의 균형이라는 훨씬 복잡한 문제들이 얹혀 있다. 그리고 그 복잡함은 실제로 학문과 산업 현장에서 나와 같은 수많은 학생들을 시험에 들게 한다.

요즘은 후배들과 함께 소규모 앱을 개발하는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다. 처음 기획 단계에서 우리는 하나의 약속을 만들었다. “우리는 누군가의 코드를 인용할 땐 반드시 출처를 밝히자. AI의 도움을 받았을 땐, 어떤 프롬프트로 어떤 출력을 얻었는지 명시하자.” 처음엔 다소 귀찮은 규칙처럼 느껴졌지만, 프로젝트가 진행될수록 이 약속은 우리 작업을 더 ‘진짜’로 만들고 있었다. 누군가의 창작을 존중하는 태도는, 결국 우리 자신의 창작을 더 당당하게 해준다.

나는 컴퓨터공학도로서 기술의 최전선에 서 있다는 자부심이 있다. 하지만 그 자부심은 타인의 노력을 빼앗지 않을 때, 내가 만든 결과물에 책임질 수 있을 때만 유효하다. 저작권은 단순한 법률 조항이 아니다. 그것은 창작자에게 주어지는 최소한의 예의이며, 더 나아가 창작이 지속되게 하는 가장 기본적인 토양이다.

디지털은 빠르다. AI는 정교하다. 정보는 넘쳐난다. 이 모든 속도와 편리함 속에서 내가 더욱 소중하게 생각하게 된 단어는 '느낌표'도 '기술'도 아닌 '책임'이다. 내가 누군가의 것을 쓸 때, 그리고 누군가가 내 것을 쓸 때, 우리는 그 행위의 무게를 서로 공감해야 한다.

저작권은 우리에게 '지키라'고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기억하라'고 속삭이는 것 같다. 이 창작 뒤에는 누군가의 시간과 열정이 있다는 것, 그리고 그 모든 노력은 존중받을 가치가 있다는 것.

앞으로도 나는 수많은 프로그램을 짜게 될 것이다. 때로는 협업하고, 때로는 인공지능의 도움도 받을 것이다. 하지만 그 모든 창작의 과정 속에서 나는 잊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은 단순한 코드가 아니라, 누군가의 삶과 연결되는 결과물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안에는 언제나, 지켜야 할 이름이 있다는 것을.